



위즈덤 “6월 반등 이끈다”



1일 KIA-KT전 복귀...5번타자·3루수로 선발 출전
“팀 위해 타격·주루·수비서 최선...부상 공백 채울 것”

“원팀으로 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KIA 타이거즈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6월 반격’을 위해 앞장선다.

위즈덤은 지난달 11일 SSG 랜더스와의 원정경기 이후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예상보다 길어졌던 공백, 그 사이 김선빈과 김도영이 이탈하는 등 KIA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활을 끝낸 위즈덤은 지난 30·3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와의 퓨처스리그 교류전을 통해 실전 점검을 하면서 ‘이상 무’를 알렸다.

30일 경기에서 지명타자로 나선 위즈덤은 31일에는 3루수로 출전해 수비까지 소화했다. 이날 경기를 통해 마지막 테스트를 끝낸 위즈덤은 KT 위즈와와의 경기를 위해 수원으로 이동해 1군 선수단과 재회했다.

그리고 1일 엔트리에 등록된 위즈덤은 5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21일 만에 다시 타석에 선 위즈덤은 1-0으로 앞선 1회초 1사 1·2루에서 우전안타를 기록하면서 복귀를 알렸다.

위즈덤은 “재활군 트레이너님들 코치들뿐만 아니라 2군 스태프들이 열정적으로 도와주셔서 허리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몇 주 쉬었으니까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진 만큼 (퓨처스리그) 두 경기를 뛰면서 타이밍을 맞추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 또 허리에 이상이 없는 지, 통증을 생각하지 않고 뛸 수 있는지 체크했다.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좋은 몸 상태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 위즈덤은 팀이 원하는 위치면 어느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다.

위즈덤은 “소프트뱅크전에서 3루수로 뛰었는데 팀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다. 3루에서도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팀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상 이탈자가 많지만 선수들과 하나가 돼 ‘원팀’을 승리를 만들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현재 나성범과 김선빈이 종아리 부상, 김도영과 박정우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그라운드에서 지위를 감졌다.

위즈덤은 “팀에 부상자가 많아서 슬프다. 다들 빨리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부상자는 많지만 경기 뛰는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해서, 팀이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쉬면서 허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재충전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싸울 준비가 됐다. 팀을 위해 타격, 주루, 수비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선수들이 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CL 결승에서 5-0 완승으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PSG 이강인 ‘빅 이어’ 품었다...17년 만 한국인 UCL 우승

인터밀란에 5-0 완승...맨유 박지성 이어 유럽축구 제패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의 이강인이 박지성(은퇴)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17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 트로피 ‘빅 이어’를 품었다.

PSG는 1일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UCL 결승에서 2골 1도움을 올린 데지레 두에의 활약을 앞세워 인터밀란(이탈리아)에 5-0으로 완승했다.

이로써 이강인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2007-2008시즌 대회에서 우승한 박지성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17년 만에 유럽 최상위 클럽대항전 정상에 섰다.

다만 당시 결승전 명단에서 제외된 박지성과 마찬가지로 이강인은 결승 무대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린 이강인은 8강전부터는 벤치만 달궜고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축구는 올 시즌 유럽클럽대항전 2부 격인

UEFA 유로파리그(UEL) 우승을 차지한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을 포함해 두 명의 유럽 클럽대항전 우승 선수를 배출했다.

카타르 왕족 자본에 2011년 인수되고서 프랑스의 ‘절대 1강’으로 군림해온 PSG는 창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UCL에서 우승했다.

특히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마이애미), 킬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 등 슈퍼스타들을 앞세우고도 달성하지 못했던 빅이어의 꿈을 이들 모두를 떠나보내고 치른 첫 시즌 달성했다.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은 부임 두 번째 시즌에 구단 숙원인 UCL 우승을 지휘해내며 명장의 지위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프로팀 감독으로 오른 토너먼트, 단판 대회 결승 무대에서 단 한 번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은 진기록을 12경기째 이어갔다.

프랑스 팀이 UCL에서 우승한 건 1992-1993시

즌 마르세유에 이어 PSG가 두 번째다.

PSG는 또 리그1, 슈퍼컵, 프랑스컵에 이어 UCL 우승도 차지하며 ‘쿼드러플’(4관왕)의 업적을 썼다.

인터밀란은 이번과 비슷한 전열로 나섰던 2022-2023시즌에 이어 또 다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PSG는 초반 극단적인 전방 압박으로 인터밀란을 당황하게 하더니 전반 12분 만에 아슈라프 하킴의 선제골로 앞서나갔다.

아슈라프 하킴이 데지레 두에의 패스를 받아 골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로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 20분 두에가 추가골을 뽑았다.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PSG는 뒷공간을 벌 때론 공격수들로 마음껏 공략했다.

후반 18분 두에가 비타냐의 패스를 받아 멀티골을 신고했고, 10분 뒤엔 흐비차 크바라츠헨리야도 득점 대열에 합류했다. 후반 41분엔 브라들리 바르콜라의 패스를 세니 마울루가 쐐기골로 마무리해 5-0 대승에 마침표를 찍었다.

/연합뉴스

전남드래곤즈, 화성 잡고 홈 3연승 질주

K리그2 2025 14라운드 3-2 승

전남드래곤즈가 화성FC를 상대로 홈 3연승을 이었다.

전남은 지난 3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14라운드 화성과의 경기에서 후반 32분 터진 김도윤의 ‘행운의 골’로 3-2 승리를 거뒀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전남의 골이 나왔다.

발디비아가 골대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문전에 있던 호난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장식했다.

전남은 전반 10분 상대의 역습 과정에서 백승우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전반 32분 다시 리드를 가져왔다.

앞선 프리킥 상황에서 상대 골키퍼 김승건의 호수비로 골을 놓쳤던 발디비아가 중거리 슈팅으로

결국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34분 상대 진영에서 공을 따낸 고태원이 호난에게 패스를 했다. 그리고 호난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발디비아에게 공을 넘겼다. 발디비아는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2-1로 전반전을 마무리한 전남은 후반 25분 다시 동점골을 허용했다.

전남 진영에서 흐른 공을 화성 조동제가 잡아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다. 골키퍼 최봉진이 왼쪽으로 몸을 날렸지만 한 뼘이 부족했다.

골키퍼의 잇단 선방에 막혔던 전남이 32분 골대를 갈랐다. 김예성의 패스를 받은 알베르티가 왼쪽에서 슈팅을 시도했다. 김도윤을 스친 공이 골절대 화성 골대를 갈랐다.

전남은 이후 5분의 추가시간까지 실점 없이 버티면서, 올 시즌 홈에서 진행된 3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시청 이재성·강다슬, 아시아육상선수권 남녀 400m 계주 한국新

남자 계주 사상 첫 금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계주팀이 한국신기록을 경신하며 사상 첫 금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31일 구미에서 끝난 이 대회 400m 계주 경기에서 광주시청 이재성은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준혁(국군체육부대)과 38초49 기록을 합작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2위 태국(38초78)을 0.29초로 따돌린 대표팀은 지난달 11일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25 세계 릴레이선수권대회’남자 400m 계주에서 작성한 한국 신기록(38초51)을 20일 만에 경신했다.

또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첫 금메달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은 앞서 1981년과 1983년, 1985년, 2023

년 4차례 동메달을 따냈지만 금메달은 획득하지 못했다.

강다슬(광주시청)과 이은빈(해남군청)도 김소은(가평군청), 김다은(가평군청)과 함께 이번 대회 여자 400m계주에서 44초45 기록으로 11년 만의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강다슬이 다시 한 번 기록의 현장을 달렸다. 앞서 강다슬은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이선애, 정한솔, 김민지와 44초 60라는 한국 기록을 작성했었다.

여자 대표팀은 0.15초 기록을 앞당겼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한국은 중국(43초28), 인도(43초86), 태국(44초26)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이재성, 강다슬, 이은빈 외에 고승환(광주시청·200m), 남보하나(진도군청



‘2025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남녀 400m 계주 한국 신기록을 세운 광주시청 강다슬(왼쪽)과 이재성. <광주시청 제공>

·3000m 장애물경기), 박서진(목포시청·해머던지기) 등 광주·전남 선수들이 출전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6월 07일(토) 16:30, 17:30 / 남구 푸른길 공원
-06월 14일(토) 16:30, 17:30 / 양산호수 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의 향해
별의 향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6-5(목)-2025-7-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GAC 공모전시
별의 향해 : 오혜성 개인전

일시 : 2025-6-5(목)-2025-7-6(토)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